

농어업회의소법 조속 논의·제정 촉구

전국회의 회장단, 국회 간담회서 요청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법안 협의할 것”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단이 최근 국회에서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 논의와 제정을 촉구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총남 보령·서천)과 위성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제주 서귀포), 홍문표 국회의원(총남 홍성·예산) 등과 만나 여야 및 정부안까지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고, 현장 농어업인의 요구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위원장은 “농민단체의 참여 등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해소했다”며 “여·야 간사들이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농민들도 정년을 뒤 73세 이상은 연금을 지급하고, 은퇴한 고령농민들이 내놓은 토지는 청년농업인이 경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간의 농어업회의소 활

동과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입법안과 5개 의원발의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만큼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이후의 운영 활성화와 전국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업회의소가 상공회의소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정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도 지난해 12월 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우성진 기자

농어업회의소 김제열 회장(경남 농특위 공동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물론 여야 정책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단은 “지난해 정기국회 개시와 함께 정부안이 제출돼 큰 기대를 가졌는데 법제정이 어렵게 돼 아쉬움이 컸다”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을 살피고 2022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도 지난해 12월 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우성진 기자

“안전 장성 시스템 강화 집중 도농 복합도시 새 모델 조성”

2022 새해설계

유두석 장성군수



“안전 장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농 복합도시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장성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 공직자들의 희생과 열정 속에서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얻은 해”라고 돌아봤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1980억원 규모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28억원 반영을 꼽았다.

이어 새해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군은 먼저,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20만을 지급하고, 상습 수해지역인 오동·장산·산흥지구를 정비하는 등 안전 장성 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성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설치와 정운지하차도 개설로 도시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 구성,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첨단3지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도농 복합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아울러, 문화·관광·스포츠 중심도시를 완성해 장성 경제에 변화를 이끌 어낼 계획이다. 황룡강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방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축령산 하늘길과 장성호수 주변백리길 조성도 이어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선비문화 세계화 콘텐츠를 구축한다. 상반기 준공 예정인 ‘노인회관’과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가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를 중점 실현한다.

미래농업 육성과 부자농촌 건설에도 힘쓴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전초기지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장성군, 농협이 함께하는 ‘장성형 푸드플랜’을 통해 농산물 유통분야를 혁신한다.

델로우시티 장성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미래인재 양성’에도 집중한다. 전남 최초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21세기장성 아카데미는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코로나 시대’에도 군민 역량과 거버넌스의 힘을 강화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해 우리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면서 “새로운 장성을 향한 희망의 물결이 바다를 이루도록, 새해에도 함께 지혜의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 오코농장 인증패 현판식

화순군이 최근 동면 옥호리에 있는 오코농장에서 농촌교육농장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신규 인증 농장인 오코농장은 아열대 식물을 주제로 반려식품 만들기, 커피 로스팅과 핸드 드립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농장 투어는 하루 2회 진행된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자원을 활용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명 등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군 품질인증 교육농장은 ▲허브프락(허브) ▲순속의베리팜(블루베리) ▲발효삼매경(발효) ▲약선향기(약선오리) ▲오코농장(아열대식물) 5곳이 운영 중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화순군 동면 오코농장에서 열린 농촌교육농장 인증패 현판식에 류정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왼쪽 두 번째)과 박조훈 오코농장 대표(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순농업기술센터 제공

장흥, 상수관로 확충사업 추진 박차

장흥군은 오는 2026년까지 상수도 99.2%의 보급률 향상을 위해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외딴집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상수도 개·보수,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주와 용산·안양지구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18억 원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딴집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6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관로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두 사업은 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공급을 해 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흥=이국현 기자

화순,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지급

764세대 1,500만원

화순군이 최근 에너지 절감액 1,500만 원을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화순군에는 764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지급된다. 절감액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가입하거나 화순군 환경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성,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7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

장성군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대상 확인 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배부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성군4-H연합회, 연탄 나눔 봉사

장성군4-H연합회가 최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 활동에는 4-H연합회 회원 43명이 참여해 지역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 28가구에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4-H연합회 이남현 회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뭉친 작은 도움으

로 조금이나마 겨울 한파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성군4-H연합회는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인 학습단체로, 황룡강 노랑꽃창포 단지 조성, 마을 제조작업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H본부동 문화와 함께 취약계층에 방한용 조끼 200벌을 기부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해피니스CC, 나주시에 성금 2천만원 기탁

해피니스컨트리클럽(회장 양진석)이 최근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나주시에 기탁했다.

나주 다도면에 있는 해피니스CC는 지역 저소득·장애인 가구 자녀를 위한 인재육성기금 마련과 생활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광주·전남지

역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회인 특수 장학회에도 인재육성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기탁식을 위해 나주시장실을 방문한 양진석 회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최형주 변호사, 담양군에 200만원 전달

담양군 대덕면 출신 최형주 변호사가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담양군에 200만원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담양군복지재단 감사 및 7년 넘게 담양군 마을번호사로 담양 지역민에게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연시 담양군복지재단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광주에서 ‘변호사 최형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형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또한 어려운 실정에서 소외계층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담양=정일용 기자